

(뉴질랜드 편)

외국의 낙농산업 정책방향

김 정 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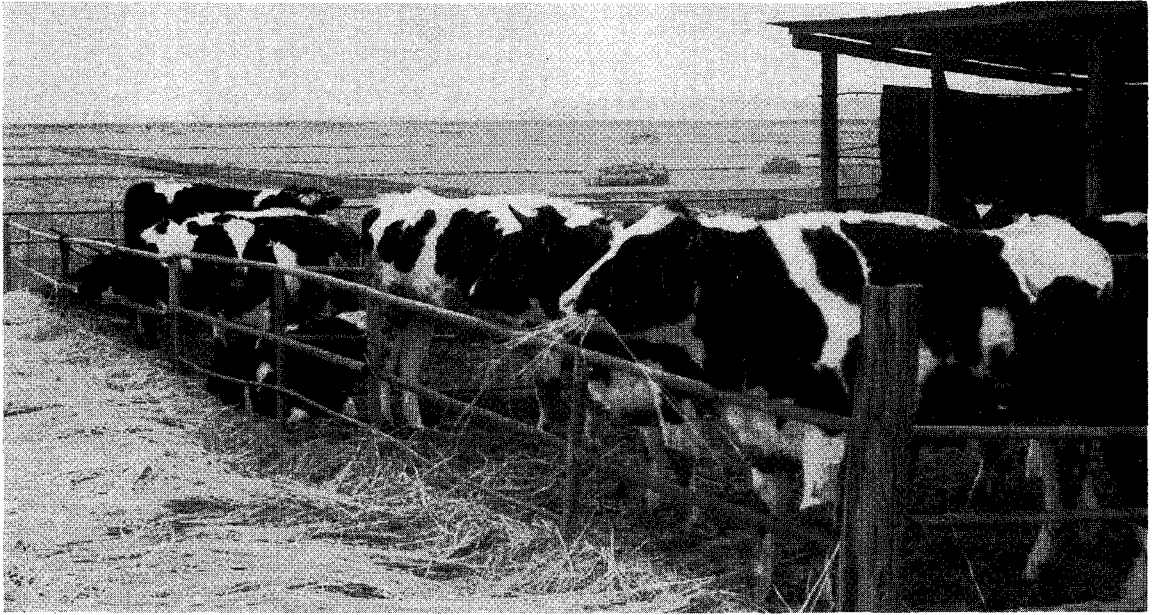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경제정책 담당

「지상의 낙원」 「낙농의 나라」 이렇게 뉴질랜드는 흔히 불리운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이 나라가 이렇게 알려진것을 지리적 역사적 조건에서 우선 찾아 보기로 한다.

지도상으로 보면 얼핏 호주대륙에 붙은 작은 섬나라로 생각될지 모르나 실은 호주와는 거리상 약 1600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으며 총면적은 268,105 평방킬로미터인데 우리나라(남한)가 99,236.58 평방킬로미터인 점에 비추어 볼때 얼마만큼의 크기인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뉴질랜드는 일본, 영국, 이태리 등과 거의 같은 크기며 북도 와 남도의 거의 크기가 같은 두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현재는 축산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 약 일천년전에 폴리네시아 인종에 속하는 마오리족이 이주해 올때까지는 포유동물이 없었고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두종류의 박쥐 등 제외하면) 새, 도마뱀과 같은 파충류, 곤충들만 서식하고 있었다. 새들중에는 날지 못하는 새들이 있었는데 그중 유명한 것은 키위새인데 밤에만 활동하는 새로서 뉴질랜드의 상징적 새이며 뉴질랜드 사람들을 흔히 키위라는 별명을 붙여 부르는 것과 우리에게 차차 알리기 시작한 키위프루트도 여기에서 연유된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약 천년전에 마오리족이 처음 도래 했지만 파상적으로 먼곳에서 목조선으로 항해해 왔는데 본격적으로 이주해온것은 13, 14세기 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양인이 처음 뉴질랜드를 발견한것은 1642년 화란의 항해가인 「아벨 타스만」에 의하여 되었지만 실지로 상륙하여 탐험하고 원주민과 접촉을 가진것은 1769에 시작하여 3차에 걸쳐서 이룬 유명한 영국의 탐험가 (쿨)선장의 탐험이 처음인 것이다. 처음에는 뉴질랜드는 고래와 물개잡이의 기지로 이용되었지만 차차 영국에서 목축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이주민이 오기시작했다. 1860~1870년에 남도의 서해안 지역에서 금이 발견된데서 일어났던 「골드 러시」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도 된 것이다.

1840년에 마오리 추장들과 영국여왕의 대리자 간에 「와이타미」 조약이 서명되어 뉴질랜드는 영국의 속국이 되었고 1852년에는 국내 자치제를 획득하고 1947년에 완전 독립국이 되었다. 그러나 국가 원수로



뉴질랜드의 젖소 농가는 약 15,000인데 그중 약 3,000여 목장은 같이 공동으로 일해주고 이익을 나누는 「셰어필 키」 제도를 쓰고 있는 목장들이지만 대부분은 부부 또는 가족구성원이 도와주는 가족단위 목장들이다.

는 영국(여)왕을 뉴질랜드(여)왕으로 삼고 있다. 뉴질랜드는 이상주의자들과 진취적 기상이 있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인 것이다.

뉴질랜드의 인구는 1986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330만명을 조금 넘으며 그중 마오리족은 약 22만명된다. 인구의 약 3분의 2는 북도에 산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반대로 뉴질랜드가 남반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북쪽이 더 따뜻하기 때문이다. 농업국이면서도 주민은 대부분이 도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백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가져왔던 동물들이 온화한 기후 때문에 소, 말, 양 외에도 산지에서 도둑섬(취나 토끼 중간쯤 되는 야생동물), 토끼, 염소 그리고 사슴등도 번성하여왔는데 어떤것은 환경내지 농축의 장애물이 되었다. 근년에 와서는 염소와 사슴은 목장에서 사육하기 시작하여 축산업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다.

뉴질랜드는 높은 산지를 제외하고는 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여름에도 섭씨 28도를 넘는적이 드물다. 거기에다가 강우량은 연 평균 1,200밀리 정도로 많은 편은 못되지만 고르게 비가 내리기 때문에, 풀이 자라나는 데에는 아주 좋은 기

후조건이다. 꾸준히 초지조성을 주력해 왔기 때문에 나라전체가 일대 초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뉴질랜드의 양축업은 초지를 토대로 하여 방목을 그 근본 영농 방식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풀이 잘 자라나지 않는 겨울철에 어미젖을 먹고 이것이 끝날 무렵 새끼들이 풀을 초지에서 직접 먹을 수 있도록 출산시기를 일정하게 하는 계절 번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후가 온화하고 일년내내 방목시키고 있기 때문에 축사가 없는 것도 뉴질랜드 양축의 한 특징이 되어 있다. 물론 여름철에 풀이 무성히 자라날 때 건초나 사이레지를 만들어 겨울에 보충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배합사료가 경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일과 같은 일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다른 나라에 비하여도 얼마나 능률있고 저렴하게 영농을 하고 있지 않은가

약간 여담이 되겠지만 뉴질랜드를 지상의 낙원이라 부르고 있는 이유중에는 만년설이 있는 높고 아름다운 남알프스산맥을 위시한 산들과 푸른 초원,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아름다운 호수 등과 같은 자연경관 뿐만아니라 이 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잘된 사회보장제도, 그리고 오염이 전혀 없고 음식물이 값싸고 위생적이며 사람들이 아주 친절한점, 이런 모든점이 종합적으로 지상의 낙원이라 불리우게 하는 원인들이다.

뉴질랜드의 목축업은 주로 고도에 따라서 각각 다른 축산을 하고 있다. 높은 산에서는 양을 기르고, 중간높이에서는 양과 고기소, 사슴을 기르며 평야나 구릉지대 내서 젖소를 기르고 있다.

1986년 6월말 현재 가축 두수는 아래와 같다.

단위 : 천두

젖소	고기소	면양	돼지	사슴	산양
3,398	4,881	67,470	435	392	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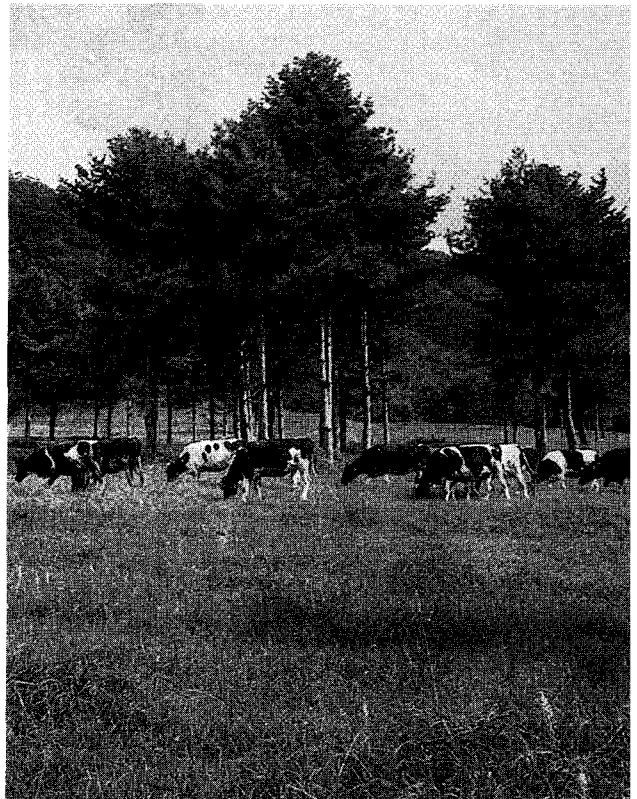
뉴질랜드의 젖소 농가는 약 15,000인데 그중 약 3,000여 목장은 같이 공동으로 일해주고 이익을 나누는 「셰어밀커」(Sheremilker)제도를 쓰고있는 목장들이지만 대부분은 부부 또는 가족구성원이 도와주는 가족단위 목장들이다.

뉴질랜드의 젖소는 원래는 대부분 저지종이었으나 차차 호리지언(홀스타인)종이 늘어나는 경향에 있어 47%이고 호르지언과 저지교배 종이 25%, 저지 24% 기타 4%로 되어있다.

시유를 계약생산하는 도회지 근처에서 영농하는 1,300호정도의 시유공급 농가를 제외하면 유제품을 만들기 위한 우유를 생산하는 농가들인데 이들은 모두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17개 낙농회사를 설립하고 약 30개의 공장을 운영한다. 일부 자가 소비농과 국내수요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출용 낙농제품을 생산하며 수출은 농가대표, 가공업체대표 및 정부대표로 구성된 이사회 아래서 운영되는 「뉴질랜드 테어리 보드」(뉴질랜드 낙농공사)에서 창구가 일원화 되어 수출된다. 낙농가의 약 90퍼센트는 20~200두의 젖소 두수가 있는 농장을 운영하는데 농가당 평균두수는 금년현재 156두이다. 방목과 영농기계획에 의해서 이와같이 많은 두수의 목장을 주로 부부만의 힘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지원은 전연없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가장 합리적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안된다. 뉴질랜드는 구라파 공동시장을 하나로 치면 세계에서 낙농생산국중 9위

에 있으나 세계제일의 낙농수출국이다. 남도에 있는 공장들은 치-즈만 생산하고 가장큰 공장중 하나에서는 생산되는 모든 탈지분유를 카세인과 카세인염 생산에 사용하지만 대부분 공장에서는 각종 낙농제품을 생산한다. 즉 빠터, 무수 유지(AMF), 냉동크림, 치-즈, 연유, 전지분유, 탈지분유, 조제분유 빠터밀크분말, 카세인제품, 유당, 유장분말 등이다.

뉴질랜드는 현재 세계의 100여개국에 낙농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1973년에 뉴질랜드의 오랜 전통적인 주요 시장인 영국이 구라파공동시장(이-시-)에 가입한 후에 수출에 막대한 제약을 받게되어 1965년에 구라파에 대한 수출이 전체 수출의 67퍼-센트 이던 것이 1984년에는 25퍼-센트 이하로 떨어진 사실에서도 볼수 있듯이 급격히 감소했다. 뉴질랜드는 수출시장 다변화에 있는 힘을 다하여 난국을 타개해나가 오늘날과 같은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 어디까지나 수입국의 필요 및 요구에 맞추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예를들어 같은 탈지분유라도 나라 또는 회사의 요청에 의해 규격이 다른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양축업은 초지를 토대로 하여 방목을 그 근본 영농방식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풀이 잘 자라나지 않은 겨울철에 어미젖을 먹고 이것이 끝날 무렵 새끼들이 풀을 초지에서 직접 먹을 수 있도록 출산시기를 일정하게 하는 제절 번식을 실시하고 있다.

태국, 필리핀, 페루 등에 우유재합성(milk recombining)용 원료제품을 공급하고 있다든가 여러 해 동안 일본의 도서지역 학급급식사업에 탈지분유를 공급해 왔다고 하는 사실이 뉴질랜드 낙농산업의 실수요자의 필요에 적응하는 신속성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부단한 연구의 결실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은 뉴질랜드에 자동차, 전자 제품을 위시한 공업 제품을 아무런 제약없이 수출하고 있다. 만일 한국에서도 농산품의 교역을 공업제품교역 정도로 자유로이 실행이 되어야 한다는 「가트」(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정신에 따라 보다 더 농산품의 수입제약을 푼다면 뉴질랜드 낙농제품의 수입이 현저하게 늘것은 쉽게 생각 될 수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출대상국의 낙농업이 건전해야만 교역관계가 오래 지속될수 있다는 확신에서 기존국내 낙농업과 협조하는 것을 절대 필요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아시다시피 많은 기술지원을 해왔다.

혹자는 값싸고 품질이 우수한 뉴질랜드 제품이 수입규제가 완화되면 국내 낙농업에 지대한 피해를 줄 것이 틀림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절대로 집중호우적인 수출 정책을 써오지 않았고 그나라의 낙농산업 발전 단계에 알맞는 정도의 수출과 제품을 공급하여 왔기 때문에 한국에 대하여도 낙농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수출 확대를 도모할 것이다.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뉴질랜드 제품과 국산제품을 합하여 가공생산 하게 되면 제품의 품질 향상과 가격의 합리화를 기할수가 있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비가 현저히 늘것이므로 낙농가가

생산하는 우유를 모두 소화 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더 많은 생산을 촉진케 되어 결국 생산농가에게도 이익을 가져다 줄것이다. 일본에서 외국 특히 뉴질랜드의 반제품 치-즈를 원료로 들여와서 국산제품과 혼합하여 가공생산 함으로써 치-즈의 생산 판매가 수년사이에 수십배 늘어난 것을 보아도 이와같은 뉴질랜드의 신념과 주장이 헛된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시원장은 글이 여러분들의 뉴질랜드에 대한 지식과 뉴질랜드 낙농의 실정과 이념을 알아보는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된다면 좋겠다.

